

『古事記』에 있어서 「死」의 漢字表記

— 『三國史記』·『三國遺事』와의 比較 —

崔書寧*

目次

1. 序論
 2. 「天皇」의 形成과 世界觀
 3. 『古事記』에 나타난 죽음(死)의 漢字表記
 4.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5. 結論
-

1. 序論

『古事記』는 일반적으로 「天皇의 이야기」라고도 말해지고 있다. 즉, 『古事記』의 역할은 천황을 保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古事記』는 어떻게 천황을 보장했는가? 이것은 이미 神野志隆光氏 등에 의해서 꾸준히 해명되고 있는데¹⁾, 본 논문도 이것을 해명하는 한 방법으로써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古事記』는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서 벗어나 獨自의 價值觀을 가지려고 했을 때 쓰여진 것으로, 이 때 일본은 고대 동아시아의 유일한 세계관인 一元帝國主義의 世界觀을 받아들여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장하려고 했는데, 이는 곧 일본 國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장한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먼저 그 보장한 「內容」을 선행 연구를 기초로 밝혀 나간다. 그리고 본 논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禮記』에 기재되어 있는 「死」에 대한 漢字의 사용법을 『古事記』에서 살펴봄으로써 「天皇」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되는 漢字의 종류에 의해서 그 사람의 地位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이 『古事記』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 졌는지 알아보고, 본인은 여기에

* 원광대학교 강사 일본학

1) 林正義(2001) 「天皇을 保障した古事記」 『日本學報』46, 韓國日本學會참고.

서 『古事記』에 있어서 「天皇」이 중국의 「皇帝」와 동격화해서 취급되어 있는 것을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나타난 者들의 「죽음」에 대한 漢字表記과 비교·검토함으로써, 『古事記』를 통해 「天皇」과 「皇帝」가 동격임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古事記』의 세계관이 실제의 역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밝혀둔다.

조사하는데 있어서 『古事記』²⁾는 小學館을, 『三國遺事』³⁾는 瑞文文化社를, 『三國史記』⁴⁾는 明文堂을 사용했다.

2. 「天皇」의 形成과 世界觀

1) 「天皇」以前의 東아시아의 世界觀

「天皇」이전의 동아시아는, 중국 왕조가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가치관(中華思想)을 토대로 질서가 유지되었고, 그것을 통괄하고 있었던 것이 중국의 皇帝이며, 그 정치기구가 冊封制度이다. 즉 중국 황제 밑에 諸國의 君主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질서가 유지되었던 세계이고, 朝貢의 의무가 지워지긴 하지만 冊封되어 臣下가 됨으로써, 제국의 군주들은 이 세계에서 地位가 보장되었던 것이다.

고대 한반도와 함께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고, 중국의 책봉제도 속에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중국에 冊立됨에 따라 얻어지는 보장은 무엇인가? 일본은 한반도를 사이에 둔다고 하는 地理的 保障에 의해서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받을 걱정은 없었으므로 일본에 있어서 문제는, 중국 황제의 권위에 의해서 국내 또는 주변 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自國의 地位 保障이다.

2) 日本을 중심으로 하는 世界觀

「天下」사상의 세계관을 시인하는 것이 古代에 있어서는 중국에 조공하는 것이 전제였는데, 「중국왕조는 天下의 중심이고, 그 황제의 德은 천하의 모두에 퍼지는 것이다 라는 세계관에서 (中略) 天下라는 것은 바로 全世界이다⁵⁾」를 보면, 「天下」라고 하는 것은 전

2) 神野志隆光(1997) 『古事記』小學館

3) 崔南善(1999) 『三國遺事』瑞文文化社

4) 金鍾權(1993(1984)) 『三國史記』明文堂

5) 「中國王朝は、『天下』の中心であり、その皇帝の徳は『天下』の全てに行きわたるべきものである、という世界觀は(中略)そしてこの場合の『天下』とは全世界にほかならなかったのである」
(神野志隆光(1986) 『古事記の世界觀』吉川弘文館, p.4)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中華思想의世界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471年 이나리아마(稻荷山)古墳의 鐵劍과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古墳에서 출토된 太刀의 기록에서 「大王」과 「治天下」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倭國王이 「治天下」를 사용하는 것은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거절하고, 獨自의 세계를 「治天下」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471年 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倭國이 중국에 조공하고 爵位가 수여되고 있던 시기이지만 이미 왜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상이 싹트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조공을 시작한 607年에 隋의 煬帝에게 보낸 「國書」의 冒頭가 유명한 「해가 뜨는 곳의 天子、書を 해가 지는 天子에게 드린다……」⁷⁾ 가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세계의 질서의 중심인 중국의 황제에게 올리는 上表文이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대등관계를 표명한 것으로, 일본 국왕의 칭호로서 「天子」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天子」의 칭호는 중국왕조의 세계관으로서 특수한 思想性을 띠는 것으로, 중국의 정치 사상에 있어서 天命을 받은 「天子」는 세계의 중심인 중국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이외의 나라는 신하가 아니면, 조공국이고, 중국과 대등할 수 없는 것이 된다⁸⁾. 그 중국에 대해서 自國의 왕에게 「天子」의 칭호로 「國書」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리가 없다.

일본국은 여기에서 중국의 「皇帝」를 세계의 질서로 하는 책봉 체제를 거부하고, 후의 「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의 질서체제의 세계 성립을 중국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제국이라고 하는 구조는 성립하지 않는다. 「天皇」에 조공하는 외신이 있고서야 비로소 중국과 같은 「帝國」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古事記』에서는, 朝貢國 다시 말하면 속국으로서 한반도를 편입함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아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요컨대 중국의 「大帝國」에 대항하는 일본의 「小帝國」을 완성시켜, 그 세계의 질서를 통괄하는 존재로서 「天皇」을 성립시킨 것이다. 이 이론적 보장이 『古事記』이다.

3) 「天皇」號의 意味

「天皇」의 「天」은 하늘이고, 「皇」은 빛남이라는 의미이다. 즉 「天皇」은 「하늘에서 빛나는 存在」라는 것이다.

周王朝(BC1100~ BC256)의 官職制度를 쓴 『周禮』의 주역서에, 「宗伯禮官之職」이라고 하는 나라의 祭司擔當의 官僚의 일에 대해서 쓴 곳이 있다. 그 최초의 「太宗伯」이라고

6) 神野志隆光(1986) 『古事記の世界觀』 吉川弘文館 p.4

7) 『隋書』東夷傳(神野志隆光: 『古事記の世界觀』에서 2차인용)

8) 주6)의 前掲書 p.4

하는 관료의 직무의 하나로 「昊天上帝」를 祭祀 지내는 일이 있는데, 漢나라 시대에 『周禮』에 주석을 붙인 鄭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昊天上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玄(鄭玄)이 말하기를 昊天上帝란 圜丘(圓丘：王이 冬至에 天에 제사지내는 언덕)에서 제사지내는 天皇大帝이다9)」또한, 여기에는 昊天上帝=天皇大帝=北極星 이라고 記錄되어 있으며, 이 天皇大帝는 天皇을 의미하고, 天皇=北極星이 된다.

이 北極星과 天皇과의 관계 지움은, 『古事記』 神代에 根源神으로서 最初에 天御中主神이 등장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古事記』는 왜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之御中主神)를 다카마가하라(高天原)에 최초로 생겨나는 神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天之御中主神은, 표기된 神名으로 해석하면 하늘(天)의 中央(中)의 「主」, 즉 하늘의 中心에 있어서 宇宙를 主宰하는 神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것은 道敎의 觀念을 빌려서 이름 지워진 신으로10), 道敎에서는 하늘의 중심에 있어서 不動의 北極星을 神格化하고 이것을 宇宙의 主宰神 昊天上帝=天皇大帝(후에는 東方世界의 主宰神)으로 하고 있다11). 즉 天皇大帝의 번역이 天之御中主神으로12), 天之御中主神을 冒頭로 둔 것은, 『古事記』가 천황의 지배 원리의 기반과 그 의미를 일찍이 明示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3).

또한 일본은 중국과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律令體制를 정비하고 「天皇」호를 사용했다. 과연 중국과 똑같은 세계를 만들어 냈을까?

일본은 중국과 같은 「皇帝」를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두는 冊封 體制를 꿈꿨지만, 결국 중국과는 다른 체제를 토대로 「天皇」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그릴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皇帝」와 같이 절대적인 힘을 갖지 않은 「天皇」은 다른 씨족을 초월하는 「天皇의 德」, 주변의 국가의 국왕을 초월하는 「천황의 德」을 나타낼 필요성이 있었다. 그것을 행한 것이 『古事記』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군주의 칭호가 신하로부터 현상된 것이 보통이다. 「皇帝」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秦始皇帝의 「皇帝」호 역시 신하로부터 현상된 것으로, 즉 과거는 묻지 않고 現在가 保障하는 未來에 이어지는 「王」이다. 그러나 『古事記』에 그려진 「天皇」은 처음부터 「天皇」이고, 그것이야말로 「天地初發時」부터 「天皇」이었다. 그러므로 신하로부터 현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天皇」은 「天地初發時」부터 계속되고 있는 萬世一系の 씨족이다. 즉 과거부터 현재·미래를 보장하는 萬世一系이다. 이것은 현실의 역사가 아니고, 『古事記』가 보장하는 역사이다. 확실히 冊封制度 전부터, 대략 「天地初發時」부터 「天皇」

9) 「玄(鄭玄)謂。昊天上帝とは、圜丘(圓丘のこと。王が冬至に天を祭る丘)に於いて祀る所の天皇大帝なり。」(齋川眞(1999)『天皇がわかれば日本がわかる』ちくま新書,p.p.37-38에서 인용)

10) 吉井 巖(1982) 「古事記の世界」 『日本神話必携』(別冊日本國文學 16) 學塔社, p.92

11) 吉野裕子(1975) 『隠された神神』講談社, p.p.41-42

12) 寺田恵子(1982) 「天地御中主神」 『古事記年報』25, 古事記學會, p.p.161-183

13) 朴正義(2001) 「天皇を保障した『古事記』」 『日本學報』46, 韓國日本學會, p.p.373-388

은 세계 질서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天皇」이라면 「禮」「法」이 없어도 「天皇」의 「德」만으로써 국내·외 즉 세계가 천황 밑에 엮드린다고 『古事記』는 설명하고 있다. 「天皇」이 「天地初發時」부터 질서였던 것처럼 未來 永劫의 질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天皇」=「北極星」인 까닭이다. 이것을 『古事記』는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⁴⁾. 그럼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古事記』가 천황을 어떻게 보장했는지 死亡했을 때 사용한 漢字에 의해서 구분하기로 한다.

3. 『古事記』에 나타난 죽음(死)의 漢字表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지위에 따라 사용되는 字가 다르다. 즉 「天子」- 「崩」, 「諸侯」- 「薨」, 「貴人」- 「卒」, 「庶人」- 「死」로¹⁵⁾ 『禮記』에 기재되어 있다. 『古事記』에서 「崩」字는 「天皇」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죽음은 「死」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인데, 조사 결과 下記와 같다.

1) 「崩」字를 사용한 경우

(1) 歷代天皇

- 十代 崇神天皇 「戊寅年十二月崩。」
- 十一代 垂仁天皇 「天皇、既崩。」
- 十三代 成務天皇 「乙卯年三月十五日崩也。」
- 十四代 仲哀天皇 「卽舉火見者、既崩訖。」
- 十四代 帶中律日子天皇 「壬戌年六月十一日崩也。」
- 十五代 應神天皇 「故、天皇崩之後....」
- 十六代 仁德天皇 「丁卯年八月十五日崩也。」
- 十七代 履中天皇 「壬申年五月三日崩。」
- 十八代 反正天皇 「丁丑年七月崩。」
- 十九代 允恭天皇 「甲午年五月十五日崩。」
- 二十一代 雄略天皇 「己巳年八月九日崩也。」
- 二十二代 清寧天皇 「故、天皇崩後....」

14) 朴正義, 上揭書, p.p.373-388

15) 禮記 曲禮 「天子死曰崩 諸侯曰薨 大夫曰卒 士曰不祿 庶人曰死」 李相玉(1985) 『禮記(上)』 明文堂, p.127

- 二十三代 顯宗天皇 「故、天皇崩、即意富け命」
- 二十五代 武烈天皇 「天皇既崩、無可知日續之王。」
- 二十六代 繼體天皇 「丁未年四月九日崩也。」
- 二十七代 安閑天皇 「乙卯年三月十三日崩。」
- 三十代 敏達天皇 「甲辰年四月六日崩。」
- 三十一代 用明天皇 「丁未年四月十五日崩。」
- 三十二代 崇峻天皇 「壬子年十一月十三日崩也。」
- 三十三代 推古天皇 「戊子年三月十五日癸丑日崩。」

이상, 역대 천황에 대해서는 그業績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 「崩」자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아이(仲哀)천황이 쓰쿠시(筑紫)에서 구마소(熊曾)를 치기 위하여 神託을 청하는 儀禮가 있었는데, 神은 神功皇后에 옮겨 앉아 서쪽의 보국(新羅)을 주겠다고 신탁을 했으나 천황은 이를 믿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신의 노여움을 사서 急逝한다. 여기에서 仲哀天皇이 天皇이 아니었더라면 神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死」를 써야할지도 모르나, 죽음의 表記에 「崩」자를 썼다는 것은 天皇은 그 업적을 생각하지 않고, 한 번 天皇으로 즉위하면 끝까지 天皇으로 모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天皇이 아닌 者로 「崩」을 사용한 경우

① 이쓰세노미코토(五瀨命)

五瀨命은 五(이쓰)는 嚴, 瀨(세)는 稻로 威嚴 있는 者 神을 말하는데¹⁶⁾ 이 五瀨命은 우가야후키아에즈노미코토(鵜葺草葺不合命)와 다마요리히메노미코토(玉依毘賣命)와의 혼인에 의해서 태어난 첫 번째 神으로 동생인 가무야마토이와레비코노미코토(神倭伊波禮毘古命)(神武天皇)와 함께 天下를 통치하기에 알맞은 곳을 동쪽에서 찾기 위하여 동정의 길에 오르다가 도중에 도미비코(登美毘古)의 심한 요격을 받고 五瀨命은 부상을 입고 기노쿠니(紀國)의 오노미나토(男之水門)에서 죽는다¹⁷⁾. 여기에서, 五瀨命의 죽음을 「崩」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五瀨命가 천황에 準해서 대우받고 있음을 나타낸다¹⁸⁾.

② 御子

御子인 品陀和氣命이다. 御子は 후의 15代 오진(應神)天皇이기 때문에 太子이지만, 天皇과 다른 대우를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③ 息長帶日賣命

16) 權五嘩(2000) 『古事記中』忠南大學校出版部 p.15

17) 權五嘩, 上掲書 p.17

18) 神野志隆光(2001) 『古事記』小學館 p.144

19) 神野志隆光, 上掲書 p.249

仲哀天皇의 皇后인 息長帶日賣命(神功皇后)은 太子에 더해 皇后의 죽음에도 「崩」이라는 字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우지노와키이랏코(宇遲能和紀郎子)

宇遲能和紀郎子は 應神天皇의 御子로, 황위를 계승할 오야마모리노미코토(大山守命)와 오사자키노미코토(大雀命)의 2명의 미코토(命)가 있었으나, 應神天皇은 大山守命에게 山海의 政치를 하라고 하고, 大雀命은 食國의 政치를 집행하고 주상 하라고 했으며 宇遲能和紀郎子は 황위에 오르라고 하였다²⁰⁾. 이러한 天皇의 편애가 大山守命에게 불만을 품게 하고, 그것이 반역에 연결되어 宇遲能和紀郎子에게 죽고만다. 이는 형이 父의 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大雀命을 제쳐놓고 즉위할 수는 없었다. 또 大雀命도 父의 命이 있는 이상 帝王의 희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皇位의 互讓이 일어나는데 宇遲能和紀郎子が 일찍 죽고 만다. 그래서 大雀命(후의 仁德天皇)이 천하를 다스렸다. 이렇듯 宇遲能和紀郎子は 황위 계승자였기 때문에 天皇에 준하는 대우를 해서 그의 죽음의 表現에 「崩」을 썼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즉 天皇이 아닌 者が 그들의 죽음 表記에 天皇 專用語인 「崩」을 썼는데, 이것은 五瀬命나 御子인 品陀和氣命, 宇遲能和紀郎子は 天皇과 다른 없는 대우를 하기 위해 「崩」자를 썼으며, 皇后인 神功皇后 역시 太子에 더하여 天皇에 準하는 대우를 하기 위해 「崩」이라는 字를 사용하고 있다.

2) 「死」字를 사용한 경우

① 오아나무지노카미(大穴牟遲神)

大穴牟遲神의 아버지 스사노오노미코토(須佐之男命)은 구시나다히메(櫛名田比賣)와 결혼하게 됨에 따라 國神이 된다. 이렇게 하여 須佐之男命의 6대손 오쿠니누시노카미(大國主神)(大穴牟遲神)가 誕生하는데, 大國主神은 위대한 나라의 主宰神으로 이즈뎨 出雲 로 대표되는 葦原中國을 지배하는 신으로 須佐之男命의 딸을 처로 함과 동시에 須佐之男命의 다치(大刀)·유미야(弓矢)를 취하여 須佐之男命의 엄청난 힘을 계승하여 葦原中國을 완성시킨다²¹⁾.

이와 같이 大國主神은 분명히 須佐之男命을 통해 天神의 핏줄을 이어 받았지만, 國神과 결혼하여 國神(高天原 계통의 神에 대응하는 地上神)이 되었기 때문에, 天神과 관계가 멀어 졌으며, 어떤 일을 한 것과는 상관없이 핏줄을 따라서 죽음의 한자 표현에 「崩」을 쓸 수가 없었고, 「死」를 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0) 權五曄(2000) 『古事記中』忠南大學校出版部, pp.322-323

21) 權五曄(2000) 『古事記上』忠南大學校出版部 p.141

② 아메노와카히코(天若日子)

이 신은 天神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의 한자 표기로 「死」를 썼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신이였는가? 大國主神이 건국하고 통치자가 된 葦原中國을 高天原즉이 목인할 리 없었다. 高天原의 主宰者인 天照大御神은 그 나라의 統治를 아들인 아메노오시호미미노 미코토(天之忍穗耳命)에게 命한다. 그러나 하강하다 되돌아 왔기 때문에 高天原에서는 상의하여 아메노호히노카미(天菩比神)를 교섭 특사로 보냈으나 그는 大國主神에 넘어가 복명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2의 사자로 파견된 신이 天若日子이다 제1의 사자로 파견된 天若日子가 大國主神의 딸 시타데루히메(下照比賣)를 처로 맞고, 8年이나 돌아오지 않자, 高天原에서는 그를 문책하기 위하여 평을 파견하였으나 오히려 사살 당한다. 그 화살이 高天原까지 날아왔기 때문에 다카미무스히노카미(高御産巢日神)가 되던졌고, 자고 있던 天若日子는 그 화살에 죽고 만다.

즉 하늘에서 내려 온 天若日子는 葦原中國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품으나, 天神을 배반 하였기에 돌아 온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天神 이더라도 天神을 등졌기 때문에 그의 죽음 표현에 「死」를 쓴 것 같다.

③ 에우카시(兄宇迦斯)

우다(宇陀)에 에우카시(兄宇迦斯)와 오토우카시(弟宇迦斯)라는 두 사람이 있었다. 天皇(伊波禮毘古命)은 八咫鳥를 사자로 하여 토호 형제에게 귀순을 권하였으나 형 宇迦斯는 사자를 활로 되 쫓아 보낸다. 또 형인 宇迦斯는 복종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전을 만들어 天皇을 속여서 치려고 한다. 그러나 동생 宇迦斯가 형의 謀略을 천황에게 密告하였기 때문에 천황의 장군 道臣命과 大久米命이 형 宇迦斯를 문책하여 어전에 몰아넣자 자기가 설치한 덫에 걸려 죽는다. 형 宇迦斯 역시 天神의 뜻에 대립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 표기 역시 「死」로 생각된다.

④ 다케하니아스노미코(建波邇安王)

建波邇安王는 고젠(孝元)천황의 자식으로, 大毘古命의 異母兄弟이다²²⁾. 大毘古命(崇神 天皇의 伯父)이 高志國에 내려갔을 때에 치마를 두른 처녀가 山代の 幣羅 언덕에 서서 노래하며 말하길,

미마키이리히코여 미마키이리히코여 자기의 목숨을 남 모르게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뒷문에서 사람 눈을 피해 오가고, 앞문에서 사람 눈을 피하여 오가면서 노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미마키이리히코여²³⁾

22) 神野志隆光(2001) 『古事記』小學館 p.189

23) 주22)의 前掲書 p.189 「御眞木入日子はや 御眞木入日子はや 己が緒を 盗み殺せむと 後つ戸よ い行き違ひ 前つ戸よ い行き違ひ 窺はく 知らにと 御眞木入日子はや」

라고 노래하였다.

大毘古命은 되돌아 와 天皇에게 주상 하였더니, 천황은 建波邇安王의 반역의 징조로 판단하고, 大毘古命에게 日子國夫玖命을 함께 보내어 치게 한다. 이 이야기는 崇神의 叔父에 해당하는 建波邇安王이 반역을 꾀하다 천황의 伯父인 大毘古命에게 정벌 당한 이야기로, 建波邇安王 역시 天神에 叛逆한 사람으로 그의 죽음 표기에 「死」를 쓴 것 같다

⑤ 마토노히메노미코토(圓野比賣命)

垂仁天皇은 지금은 없는 皇后 사호비메(沙本毘賣命)의 進言에 따라 丹波에서 妃로 네 명의 왕녀를 맞는다. 이중에 두 사람의 왕녀는 容貌가 醜하기 때문에 부모 곁으로 되돌려지는데, 그 중의 하나인 圓野比賣命은 「같은 姊妹중에서 容貌가 醜하다는 것으로 되돌려진 것은, 인근의 화제가 될텐데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²⁴⁾라고 말하고, 결국은 弟國에 도착하였을 때 연못에 뛰어들어 죽고 만다.

⑥ 오시쿠마노미코(忍能王)과 이사히노스쿠네(伊佐比宿禰)

忍能王는 應神天皇의 이복형이며, 仲哀와 오나카쓰히메노미코토(大中津日賣命)의 皇子이다. 仲哀天皇이 일찍이 죽고, 嫡子(應神天皇)도 태어나있는데 오키나가타라시히메노미코토(息長帶日賣命)은 야마토(倭)로 돌아갈 때에 사람의 마음이 의심스럽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御子는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소문을 내게 하였다. 그러자 皇位를 노리는 자가 나타났는데 가구사카노미코(香坂王)· 오시쿠마노미코(忍能王)의 두 皇子가 그들이다. 香坂王과 忍能王은 御子가 죽었다고 듣고, 皇后를 기다렸다가 치려고 했으나 太子쪽의 장군인 建振能命이 지략을 짜내어 息長帶日賣命은 이미 돌아가셨다 라고 거짓으로 항복하자, 그것을 완전히 믿고 무기를 거두었다. 그러자 建振能命은 추격하여 남김없이 그 군세를 베었다. 그때, 忍能王은 장군 伊佐比宿禰와 함께 쫓겨 가다가 호수에 들어가 함께 죽었다. 忍能王 역시 嫡流에 대한 반역자로 그의 죽음 표기에 「死」를 쓴 것이라고 생각된다.

⑦ 가루노오미코(輕太子)와 가루노오이라쓰메(輕大郎女)

允恭天皇이 죽고, 輕太子의 즉위를 穴穗皇子(安康天皇)가 방해한다. 신하의 동향이 그것을 결정지었으나 그러한 사태 속에서 皇位를 계승해야 할 輕太子가 同母兄妹 상간의 금제를 깨고 輕大郎女와 密通하였기 때문에 人心은 동생인 穴穗皇子(安康天皇)에게로 기울다²⁵⁾. 輕太子는 동생을 물리칠 준비를 하였으나 사로잡혀서 유배당하고, 輕大郎女는 남편을 뒤쫓아서 이요(伊餘)로 가서, 부부의 정을 나누고 동반 자살을 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輕太子와 穴穗皇子(安康天皇)가 皇位繼承을 둘러싸고 대립하기 때문에 그의 죽음 표기에 「死」를 쓴 것 같다.

⑧ 시로히코노미코(白日子王)과 쓰부라오호미(都夫良意富美)

24) 神野志隆光(2001) 『古事記』小學館 p.211
 25) 權五擘(2000) 『古事記下』忠南大學校出版部 p.129

白日子王은 인교(允恭)天皇과 오나카쓰히메노미코토(大中津比賣命)의 아들이며, 구로히노미코(黒日子王)의 동생이고, 大長谷王의 형이다. 安康天皇이 皇后에게 속삭인 이야기로 천황이 아버지인 大日下王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된 일곱 살의 마요와노미코(目弱王)는 천황이 잘 때에 목을 치고, 都夫良意富美 집으로 도망친다. 이 사건을 들은 大長谷王은 兄 黒日子王과 白日子王을 권하여 보복을 피하려 하나 두 皇子가 태연해하며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례 차례로 죽여 버린다. 白日子王이 아버지인 允恭天皇의 죽음의 보복에 너무 무관심하였던 탓일까? 그 역시 죽음에 「死」를 썼다. 그리고 大長谷王은 目弱王이 도망쳐 들어간 都夫良意富美 집을 군세로 포위한다. 都夫良意富美는 딸 訶良比賣를 大長谷王에게 바치나, 자신은 어디까지나 目弱王을 비호하고 目弱王과 함께 죽어간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須佐之男命의 혈통을 이어 받은 大穴牟遲神(大國主神)이 出雲으로 대표되는 葦原中國을 지배하는 위대한 신이지만, 天皇에 이어지는 天神에 대항한 國神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 표기에 「死」를 쓴 것이며, 忍能王 역시 천황에 대응하는 者이고, 天若日子처럼 天神임에도 불구하고 「死」로 표기된 것은 天神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출신계급과는 상관없이 천황에 이어지는 天神이나 天皇에 대응하는 者는 모두 그들의 죽음에 「死」로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음 章에서는 『古事記』와 비교할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살펴보기로 한다.

4.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1)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三國史記』는 현존하는 國史書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당시 高麗는 타국과 겨룰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었던 시기로, 고려왕조를 보장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三國遺事』가 쓰여진 것은, 武臣政權 성립 후 元에 침략되고 역사상 처음으로 속국으로서 나라의 독립이 침범 당한 1281年, 民族의 獨立·國體存續의 요구가 보다 심해졌을 때로, 『三國史記』가 쓰여진 때와는 역사적 요구가 다르다.

2) 『三國史記』에 나타난 죽음(死)의 漢字表記

『三國史記』에서는 조사 결과 「崩」은 총 4개, 「薨」은 115개, 「卒」은 60개, 「死」는 60개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 「天子」에게 쓰는 「崩」은 다음과 같이 중국의 역대 황제에게

만 쓰고 있었고,

- 湯 (中國 殷 王朝 14代孫의 湯王)
- 文帝 (唐 太宗)
- 唐 德宗 (中國 唐나라의 弟9代 皇帝)
- 唐 太宗 (唐의 高祖 李淵의 둘째아들 李世民으로 高祖의 제위를 이어 받아 唐 王朝 300年の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한반도 역대 왕들에 대해서는 「薨」을 쓰고 있다. 또한 『三國史記』에서는 眞興王妃, 王妃松氏처럼 王妃에게도 王과 똑같이 「薨」을 썼으며, 東明王인 朱蒙의 어머니인 柳花와, 太后于氏인 太后에게도 왕과 같은 대우를 했다. 그리고 가야국의 始祖 金首露王의 12대손으로 삼국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장군 金庾信과,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 文武王의 아우)이면서 신라의 장군으로서 장산성을 쌓고, 국방을 튼튼히 하였으며, 외교가로서 나당연합군의 조직에 성공한 金仁文에게도 王과 다른 「薨」을 썼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특이한 점으로, 조사 결과 太子나 王妃는 「薨」을 쓸 때도 있었고, 「卒」을 쓸 때도 있었다. 그 중 「卒」을 쓴 태자나 왕비는 조사결과 다음과 같았는데, 이들은 업적은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뜬 者들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1) 太子- 眞興王의 아들로서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銅輪이다 어머니는 사로부인 박씨이며 太子 만이들 銅輪이 책봉된 지 6年 만에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자, 둘째 아들 舍輪이 왕위를 이어 25대 眞智王이 되었다가 3年 만에 돌아가시니 銅輪 태자의 아들인 백정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 (2) 昭德王妃- 聖德王의 세 번째 妃인 昭德王后는 伊 順元의 딸로서 承慶(34代孝成王), 憲英(35代 景德王), 그리고 이름 未詳의 아들을 낳고 聖德王 23年 12월에 죽었다.
- (3) 仁謙- 元聖王의 큰 아들인 惠忠太子 仁謙은 元聖王의 卽位와 동시에 太子로 冊封되어 다음의 왕위 계승권자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791年 1월 仁謙太子가 죽자, 그 해 8월에 왕자 義英을 다시 책봉하였다. 10年 2월에 義英이 죽으니, 11年 惠忠太子의 아들 俊邕으로 太子를 삼았다.
- (4) 章和夫人- 興德王의 妃이며, 昭聖王의 딸인 章和夫人 김씨는 즉위 원년(826) 12월에 왕비 章和夫人이 돌아가니 追封하여 定穆王后라하고, 王은 죽은 妃를 사모하여 잊지 못하였다. 君臣들이 表를 올려 새로 王妃를 맞을 것을 請하나 王은 君臣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또한 侍女까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三國遺事』에서 「死」를 썼던 신라의 장군 金庾信과, 신라 太宗大王的 둘째 아들

金仁文에게는 王과 똑같이 「薨」을 쓸 때도 있었고, 「卒」을 쓸 때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三國史記』에서 百濟21代王인 蓋鹵王에게 그의 죽음 표기에 있어서 「死」를 쓰고 있었는데, 蓋鹵王은 毗有王의 장자로, 고구려 장수왕이 보낸 첩자 승려 道琳의 계략에 의해 한강유역 일대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살해되었으며, 또한 토목 공사(궁궐의 축조, 제방의 축조 등)를 일으킴으로써 국력의 피폐화를 시켰던 왕이다. 이것은 王이라고 하는 지위였지만 그 업적에 의해서 「死」의 한자표기가 사용되어졌다고 추측된다. 이것으로 보아 『三國史記』에서는 자국의 왕을 세계를 지배하는 「天子」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또한 그 업적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三國遺事』에 나타난 죽음(死)의 漢字表記

『三國遺事』에서는 조사결과 「崩」은 총 27개, 「薨」은 4개, 「卒」은 11개, 「死」는 16개로 조사되었다. 먼저, 역대 王과 王后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崩」이라는 字를 쓰고 있었다.

- 新羅二代 南解居西干 「以地皇四年甲申崩。」
- 新羅三代 弩禮王 「及弩禮王崩。以光虎帝…」
- 新羅四代 脫解王 「在位二十三年。建初四年己卯崩。」
- 新羅十三代 末鄒王 「在位二十三年 而崩。」
- 新羅二十五代 舍輪王 「是年 王見廢而崩」
- 新羅二十七代 善德女王 「至其月日王果崩」
- 新羅二十九代 太宗大王 「龍朔元年辛酉崩。壽五十。九歲。」
- 新羅三十代 文武王 「大王御國二十一年。以永隆二年辛巳崩。」
- 新羅三十五代 景德王 「至八歲王崩。太子即位。」
- 新羅三十七代 宣德王 「未幾宣德王崩。」
- 新羅四十七代 憲安大王 「翌日王崩。郎奉遺詔即位。」
- 新羅四十八代 景文大王 「王崩。諡曰景文。」
- 新羅五十六代 金傅大王 「太平興國三年戊寅崩。」
- 百濟六代 仇首王 「又沙沸王。一作沙伊王。仇首崩」
- 駕洛國二代 居登王 「嘉平五年癸酉九月十七日崩。」
- 駕洛國三代 麻品王 「永平元年辛亥一月二十九日崩。」
- 駕洛國四代 居叱彌王 「永和二年丙午七月八日崩。」
- 駕洛國五代 伊尸品王 「義熙三年丁未四月十日崩。」
- 駕洛國六代 坐知王 「永初二年辛酉五月十二日崩。」

- 駕洛國七代 吹希王 「元嘉二十八年辛卯二月三日崩。」
- 駕洛國八代 銓知王 「永明十年壬申十月四日崩。」
- 駕洛國九代 紺知王 「正光二年辛丑四月七日崩。」
- 隋煬帝(中國 隋나라의 두 번째 王) 「帝崩後,生於高麗。」
- 新羅三十五代 景德大王 「… 欲鑄巨鐘一口。未就而崩。」
- 新羅三十二代 孝昭王 「時年十六。長安二年壬寅崩。」
- 新羅三十一代 神文王 「及神文王崩,孝昭即位。」
- 王后(駕洛國의 始祖인 首露의 王后) 「靈帝中平六年己巳三月一日后崩。」

그러나 北扶余의 王 夫妻와 新羅二代 南解王, 新羅二十八代 眞德王, 扶余州王에게도 『禮記』의 원칙에 의하여 天子에게 쓰는 「崩」을 써야 하는데, 그들의 죽음에 「薨」을 쓰고 있다. 또한 『三國遺事』안에서도 같은 王인 南解王인 경우 그의 죽음에 「崩」을 쓸 때도 있고 「薨」을 쓸 때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라 28代 眞德王은 정치적 안정을 꾀했으며, 김유신으로 하여금 국력을 배양하게 하여 삼국통일의 기초를 다져나간 왕으로, 그의 업적으로 볼 때 「崩」을 써야하는데 왜 「薨」을 썼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王의 죽음에도 「卒」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다. 百濟의 義慈王은 武王의 元子로서 용맹하고 孝로써 아버이를 섬기고 형제들과 우애했지만, 淫亂과 酒色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아 나라를 위태롭게 한 왕이다. 이와 같이 『三國遺事』에서는 원칙으로서 왕에 대해 天子에 대한 「崩」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업적에 의해서 「薨」과 「卒」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三國遺事』에서는 始祖를 天帝와 연결 지어 역대의 왕을 「天子」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고, 「天子」라고 하는 것은 中國에서는 天下를 통치하는 君主의 명칭으로 사용되어졌지만, 『三國遺事』에 나타나 있는 세계는 韓半島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全世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三國遺事』에서는 천하를 통치하는 군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天帝의 핏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한다.

5. 結 論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漢字의 구별이 『禮記』에 明示되어 있다. 즉 「天子→崩, 諸侯→薨, 貴人→卒, 庶人→死」로, 「天子」의 稱號는 中國에 있어서 一元帝國主義的世界觀²⁶⁾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天下를 統治하는 者를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天子」는 세

26) 一元帝國主義的世界觀이란, 近代와 같이 大英帝國이나 독일帝國 그리고 아메리카帝國·大日本

계의 중심인 중국에 단 한 사람 뿐인데, 『古事記』와 『三國遺事』에서는 王의 죽음에 「崩」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

먼저, 『古事記』에서는 역대 「天皇」의 죽음에 대해서 「崩」을 쓰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죽음은 「死」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째, 天皇 以外에도 太子나 皇后에게도 「崩」을 사용하고 天皇과 다른 待遇를 하고 있고, 둘째, 「天皇」은 한 번 天皇으로 모셔지면, 업적은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역시 「崩」을 사용하고 天皇으로서의 대우를 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大國主神이 天神의 혈통을 이어 받은 훌륭한 者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적과는 상관없이 천황에 이어지는 天神에 대항하는 國神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崩」을 쓸 수가 없었다. 넷째, 天皇에 이어지는 天神일지라도 天神을 배반할 경우에는 죽음 표기에 「死」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한 번 「天皇」이 되면, 그 業績에 관계없이 끝까지 「天皇」으로 대우했고, 天皇에 이어지는 天神이나 「天皇」에 대응하는 者는 그 업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죽음의 漢字表記에 있어서 「死」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古事記』에 의해서 「天皇」이 保障되었음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三國史記』에서 「崩」은 중국의 역대 王인 湯王, 唐 太宗(文帝), 唐 德宗에 게만 쓰고, 한반도 역대 왕들에 대해서는 모두 「薨」을 쓰고 있다. 특이한 점은, 조사 결과 王妃는 「薨」을 쓸 때도 있고 「卒」을 쓸 때도 있었는데, 「卒」을 쓴 太子나 王妃는 업적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者들이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三國遺事』에서 「死」를 썼던 신라의 장군 金庾信과, 新羅 太宗大王의 둘째 아들 金仁文에게는 王과 똑같이 「薨」을 쓸 때도 있었고 「卒」을 쓸 때도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三國史記』에서 백제21代 王인 蓋鹵王에게 그의 죽음 표기에 있어서 「死」를 쓰고 있었는데, 이는 출신 地位를 중요시 여겨 한 번 天皇으로 모셔지면, 마지막까지 「天皇」으로 대우를 했던 『古事記』와는 달리 아마도 그의 출신 지위 보다는 업적에 따라 「死」로 표기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三國遺事』에서는 역대 王과 王后의 죽음의 漢字表記에 있어서 「崩」이라는 字를 쓰는 점은 『古事記』와 같지만, 夫妻나 南解王, 眞德王, 扶餘州王의 경우에는 「薨」을, 百濟의 義慈王의 경우에는 「卒」을 쓴 것을 보면, 왕의 지위 보다는 그 업적을 중요시 여겨 쓴 것 같다.

그렇다면, 『古事記』에서 「天皇」에 쓰여지는 「崩」과, 『三國遺事』에서 쓰여진 「崩」은 같은 의미인가? 그것은 아니다. 『古事記』에서는 「天皇」을 「天子」로 취급하여 天皇의 죽음

帝國 등 多元的으로 帝國이 存在하고 서로가 다룬 것이 아니라 世界에 있는 帝國은 唯一하게 中國뿐, 그 밖의 나라는 모두 中國의 屬國이다 라고 하는 世界觀을 意味하고, 多元的에 대해 一元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 朴正義(2002) 「日本神話における世界觀の變遷」 『日本文化學報』 15, 韓國日本文化學會

에 「崩」을 사용하고 있지만, 『三國遺事』에서는 始祖를 天帝와 연결 지어 역대의 왕을 「天子」와 同格으로 취급하고 있다. 「天子」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天下를 통치하는 君主의 명칭으로 사용되어졌지만 『三國遺事』에서는 천하를 통치하는 군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天帝의 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한다

즉, 『三國遺事』나 『三國史記』에 나타나 있는 세계는 한반도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이 전세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古事記』에 나타나는 「天皇」은 世界不動의 중심으로서 「天皇」이 「天子」로서의 位置를 얻고 있음이 실증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古事記』에서도 天皇에 따라 「崩」이라는 漢字로 천황의 죽음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1代-9代天皇과 12代와 20代天皇)도 있고, 24대와 28, 29대 天皇은 조사결과 죽음을 표기에 있어서 아무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되었는지와, 본문에 쓰여 있는 「崩」과 와리쿠(割注)에 쓰여 있는 「崩」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 연구 과제로 하고 싶다.



【參考文獻】

- ・權五擘(2000) 『古事記』上 忠南大學校出版部 p.141, pp.201-202
- ・_____ (2000) 『古事記』中 忠南大學校出版部, p.15, p.17, pp.299-323
- ・_____ (2001) 『古事記』下 忠南大學校出版部 p.129, pp.146-149
- ・金鍾權(1993(1984)) 『三國史記』明文堂
- ・民族文化研究所編(1984) 『三國遺事研究上』嶺南大學校出版部
- ・『三國遺事』(1998) 大韓佛教曹溪宗 僧伽大學院
- ・李相玉(1985) 『礼記』上 明文堂 p.127
- ・朴正義(1998) 「創世神話再考-『古事記』神統譜中心-」 『日本文化學報』5, 韓國日本文化學會
- ・_____ (2001) 「天皇を保障した古事記」 『日本學報』46, 韓國日本學會 pp.373-388
- ・_____ (2002) 「韓日古代神話と中世神話にあらわれた世界觀の比較」 『日本文化學報』12, 韓國日本文化學會 pp.277-293
- ・_____ (2002) 「日本神話における世界觀の變遷」 『日本文化學報』15, 韓國日本文化學會
- ・崔南善(1999) 『三國遺事』瑞文文化社
- ・韓祐欣(1976) 『韓國通社』學生社
- ・上田正昭(1999) 「講學アジアの中の日本古代史」朝日新聞社
- ・川口謙二(平成8年(昭和55年)) 『神々の系圖』東京美術
- ・_____ (平成8年(昭和55年)) 『神々の系圖』續 東京美術
- ・栗原明信(1978) 「上代日本對外關係の研究」吉川弘文館
- ・神野志隆光(1997) 『古事記』小學館, p.144, p.189, p.211, p.249 p.251
- ・_____ (1986) 『古事記の世界觀』吉川弘文館 p.4
- ・齋川眞(1999) 「天皇がわかれば日本がわかる」ちくま新書, pp.37-38, pp.110-114,
- ・左伯有清(1983) 「古代の東アジアと日本」教育社
- ・寺田惠子(1982) 「天地御中主神」 『古事記年報』25, 古事記學會, p.p.161-183
- ・吉井 巖(1982) 「古事記の世界」(日本神話必携 別冊日本國文學) 學塔社 p.92
- ・吉野裕子(1975) 『隠された神神』講談社, p.p.41-42

要 旨

人が死んだ時、使用される漢字の種類によってその人の地位を一般的に判断できる。つまり、「天子→崩、諸侯→薨、貴人→卒、庶人→死」と死の漢字表記を、崩・薨・卒・死の4段階で區別している。

ここで「崩」を使用する「天子」の称号は、天下を統治する者だけに使用する。また、このような「天子」は世界の中心である中國に唯一人だけ存在する。「天子」に使う「崩」が『古事記』ではどのように使われてきたか、つまり「死」の漢字が『古事記』においてどのように使われたかによって、「天皇」の位置が明らかになる。

『三國史記』では、中國の歴代の王だけに「崩」を使って、韓半島の歴代王と王妃・太后には「薨」を使い、特異な点としては、新羅の將軍の金庾信と金仁文にもその業績を重要視して王と同じ「薨」を使ったこと。また、業績を成し遂げられなくて早く死んでしまった太子や王妃は「卒」を使い、百濟21代王の蓋鹵王にも「死」を使っている。これは、一度天皇として奉られると最後まで「天皇」として待遇した『古事記』とは違って、その地位よりも業績によって「死」に表記を區別したと言える。

次に『三國遺事』では歴代の王と王后の死の漢字の表記に於いて「崩」という字を使った点は『古事記』と同じであったが、王であっても北扶余の王の夫妻と新羅二代の南解王・新羅二十八代の眞徳王・扶余州王の死に「薨」を使い、百濟の義慈王に「卒」を使った点から見ると、『三國遺事』も『三國史記』と同じく、地位よりもその業績を重要視して死の表記を區別したと推測できる。

これに反して、『古事記』では歴代の「天皇」の死に對して「崩」を使っていることを原則とするのは『三國遺事』と同じであるが、それ以外の死は「死」で表すのが普通である。しかも「天皇」になるとその業績に關係なく最後まで「天皇」として待遇し、なお天皇以外にも太子と皇后にも天皇と同じ待遇をした。また、天神(あまつかみ)であっても「天皇」に通じる天神また「天皇」に對立する者は、その業績がたとえすぐれていてもすべて死の漢字の表記において「死」を使用している。これを考えると『古事記』は「天皇」を絶對的な存在、すなわち、天下を支配とするものとして保障したと言える。

キーワード：崩、薨、死、古事記、三國史記、三國遺事

투 고 : 2003. 11. 29
 2차 심사 : 2003. 12. 19
 3차 심사 : 2004. 1. 8